

늑막 질환의 분포에 대한 임상 분석

고려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

최영호·김연수·조원민·선 경·김광택·김학제

늑막 질환은 비교적 흔한 흉부외과의 한 중요한 분야이다. 질병의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질환의 분포양상이 중요하며 늑막질환의 경우 지금까지 이러한 자료가 부실한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 질병의 분포가 외국과는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방침이 다르게 적용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94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2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중 흉강에 병변이 있었던 1053명에 대한 입원기록을 이용하여 임상 분석을 시행하여 한국형 기본자료의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가장 빈발한 병변은 기흉으로 505명(48.0%), 다음은 흉수(348명 34.0%), 농흉(106명 10.1%), 혈흉(84명 8.0%)의 순이었다. 환자의 성분포는 남자 824명, 여자가 229명으로 3.6대 1이었다. 기흉의 경우 남녀비가 7.28:1(444:661)로 남자에서 다발하였다. 연령층은 20대가 249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가장 호발한 연령대가 된 이유는 기흉환자에서 20대 발생한 경우가 198명(39.2%)로 많았기 때문이다. 기흉을 제외한 경우 50대가 20.8%(114/548)로 가장 다발한 연령군이었다. 발생위치는 우측이 489명, 좌측이 407명, 양측 발생한 것이 123명이었다. 모든 질환에서 좌우발생 빈도가 비슷하였으나 우측이 다소 발생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농흉만은 좌측이 우측보다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다(53명 대 45명). 주증상은 동통 455(43.2%), 호흡곤란 421(40.0%), 발열감 64(6.1%)의 순을 보였다. 기흉의 경우 동통과 호흡곤란이 각각 56.4%(285), 44.8%(226)로 대부분의 증상을 이루었고, 농흉과 흉수 경우는 발열감이 각각 27.4%(27), 8.3%(29) 비교적 다발한 증상이었다. 발생 원인은 원발성인 경우가 377명(35.8%), 폐렴이 140명(23.3%), 외상성인 경우가 110명(10.4%), 결핵에 의한 것이 109명(10.4%)이었다. 기흉에서는 원발성인 경우가 357명(70.7%), 결핵에 의한 것이 54명(10.7%)이었고, 흉수에서는 암에 의한 것이 117명(33.6%), 폐렴에 의한 것이 80명(23.0%)으로 많았고, 농흉에서는 폐렴에 의한 것이 48명(45.3%), 결핵에 의한 것이 18명(17.0%)로 많았고, 혈흉은 외상성인 것이 65명(77.4%)로 많았다. 질병의 재발율은 혈흉이 32.1%(27/84), 농흉이 27.4%(29/106), 흉수가 17.2%(60/348), 기흉이 14.1%(71/505)를 보였다. 흉수에 대한 세균 양성검사를 시행하여 균이 동정된 60명에서 21례에서 포도구균이, 12례에서 크레브시엘라로 빈번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늑막질환의 분포를 예측하고 진단 및 치료방법을 표준화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는 후후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